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4월 1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15.(월) 오후 14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4. 15.(월)	담당부서	원전환경과
담당과장	손호영 과장(044-203-5340)	담 당 자	류재형 사무관(044-203-5318)

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체결식 및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

- **핵심인프라로 동남권(부산 · 울산, 경북[경주])에 노후되어 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한 '원전해체연구소' 설립**
- **동시에 진행되는 원전해체연구소(경수로), 중수로해체기술원(중수로)를 구심점으로 원전해체산업 초기시장 창출 및 전문기업 육성**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(장관: 성윤모) 4.15(월) 국내 최초 해체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'**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체결식**'을 개최하고 이어서 **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 마련**을 위한 민·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< MOU 체결식 개요 >

○ 일시/장소 : '19.4.15(月) 14:30 / 고리원전 현장

○ 참석자 : 정부, 국회, 지자체, 관련기업, 유관 공공기관 등 30여명
- (정부)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원안위
- (국회) 강길부, 최인호 의원
- (지자체) 부산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경상북도지사, 경주시장, 울주군수
- (관련 기업) 대기업(두산중공업 등), 중소기업(오르비텍 등) 5개
- (유관 공공기관) 한수원, 원자력환경공단, 한국원자력연구원, 에기평, KINGS

○ 금번 행사는 설계수명 만료로 영구정지된 **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**와 함께 **국내외 원전해체시장의 성장에 선제 대비**하기 위한 **핵심 인프라**로서 원전밀집 지역인 **동남권 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**을 추진하고,

○ 향후 설계수명이 만료될 노후 원전의 증가에 따른 원전해체 수요를 우리 원전기업의 기술과 역량으로 안전하게 해체하고 **원전해체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**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**관련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**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체결

□ 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서 **원전해체연구소**를 **부산·울산**(경수로 분야), **경주**(중수로 분야)에 '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한다.

< 원전해체연구소 개요 >

○ **세부입지** : **(원전해체연구소)**고리원전內, **(중수로해체기술원)**경주 감포읍 일원

* 중수로는 원자로 형태 및 폐기물 종류 등이 경수로와 상이하여 별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고, 장비이동·폐기물 관리 및 원전 인근 관련 인프라 고려시 월성본부에 인접하여 별도 기술원 설치 필요

○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자체 등과 입지 및 설립 방안을 협의해왔으며, 금일 '**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**' (한수원-부산·울산·경북) 체결을 통해 상호간 연구소 설립·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○ 원전해체연구소는 **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**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, 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, **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**할 계획이다.

-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(Mock-up), 제염성능 평가시설, 절단설비 등 **핵심장비를 구축**할 예정이며, 지역별 기업 지원기관, 대학교,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하여 동남권 지역 **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(Hub) 역할**을 수행할 계획이다.

□ 또한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**연구소 설립준비단**을 출범('19.5)하여,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인력선발, 장비구입,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 일부를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민·관 합동 간담회 개최

□ MOU 체결식에 이어서 노후된 원전 해체를 위한 **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**에 대해 민·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**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**가 개최되었다.

○ 산업부는 원전해체 분야는 초기 시장이며 절대적 강자가 없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국내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하여 **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**는 물론이고 **해외시장 진출**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

○ 이를 위해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및 원전기업의 초기일감 창출, 전문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한 후,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.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"2020년대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 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,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**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**로서 **시장을 선점**해나갈 필요가 있다"고 강조하면서,

○ "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, 민관공동 R&D, 장비개발·구축 등 **선제 투자**를 추진해 나가겠다"고 의지를 밝혔다.

○ 또한, "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**원전기업**의 **해체 참여**를 유도하여 **산업역량을 확충**하고 **지역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**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□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(안)은 향후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·발표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류재형 사무관(☎ 044-203-53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